

부실 사립대, 자산·교원기준 완화 법인 해산 땀 잔여재산 활용 허용

구조개선 계획 이행 시 규제 특례
교원 확보율 최대 30%까지 완화
적립금 사용·자산 처분 제한 풀어
해산정리금·공익법인 출연 허용
폐교 교직원·학생 보상 근거 마련

경영위기 사립대학이 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교원 확보율, 적립금 사용 제한이 완화된다.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는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고, 폐교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보상 근거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대학교구조개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5일 시행되는 사립대학교구조개선법에 맞춰 재정진단과 경영위기대학 지정, 구조개선명령, 지원 특례 등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다.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과 관리 업무를 맡을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재정진단과 구조개선 지원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영위기대학은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이행 실적을 전담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교육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가 구조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명령 내용과 사유, 이행 기간 등을 문서로 통지하며, 대학과 학교법인은 이행 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보고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 이행계획을 수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과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대학 간 통폐합을 추진하는 경영위기대학은 교원 확보율 기준을 최대 30% 범위에서 완화받을 수 있다.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구조개

선 조치를 마칠 때까지 관련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출연할 수 있다. 다만 출연 대상 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질렀거나 학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면 출연할 수 없다.

학교재산 배임·횡령이나 회계 부정으로 처벌받고도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 범위에서 면직보상금이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폐교대학 소속 학생에게는 편입학을 지원하고, 편입학을 포기하면 잔여재산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지급한다.

폐교대학 연구자가 학술·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이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보호 규정도 마련됐다. 폐교대학 기록관리 시스템을 통해 졸업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도 지원한다.

최고진 교육부 장관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과 선제적 경영정상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 모아타운 취소구역 안내 강화

구청 누리집·구보에 취소 정보 공개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사업이 취소됐는데도 개발 예정지로 알려져 거래가 이뤄지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취소구역 안내체계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모아타운·신속통합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마련해 5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후보지 단계에서는 법적으로 취소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 사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개발 예정지로 인식돼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서울시는 주민과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취소 정보를 안내하는 체계

를 구축했다.

지침에 따라 각 자치구는 후보지 취소 정보를 구청 누리집과 구보에 공개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포털 ‘정비사업 정보 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구역 내 현수막과 벽보 등 홍보물도 정비한다. 사업 추진 주체가 자진 철거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주체가 없으면 자치구가 직권으로 철거한다.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후보지를 중개할 경우에는 자치구나 서울시에 구역 현황을 확인한 뒤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안내하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이현진 기자



한탄강 세계지질공원(비둘기낭 폭포)

/경기도

숲·계곡·지질명소로 떠나는 여름여행

경기도, 자연공원 7곳 추천
도립·시립·군립공원 5곳 포함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연인과 함께 방문하기 좋은 도내 자연공원 7곳을 추천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남한산성·연인산·수리산 등 도립공원 3곳과 천마산시립공원, 명지산군립공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화성 국가지질공원이다. 수도권에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숲과 계곡, 역사문화유산, 화산과 해안이 빚어낸 다양한 지질경관을 즐길 수 있는 명소들이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은 울창한 숲과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성곽길을 함께 둘러볼 수 있는 곳이다.

연인산도립공원에서는 맑은 물과 기암괴석,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용추계곡을 따라 걸으며 시원한 계곡과 숲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 수리산도립공원은 도심과 가까우면서도 깊은 숲을 품고 있어 반나절 산행이나 가벼운 숲길 걷기에 적합하다.

천마산시립공원은 해발 812m의 산세와 울창한 숲을 갖춘 산립 휴양지다. 호평동과 천마산역, 관리사무소, 가곡리 방면 등 다양한 탐방로를 이용할 수 있어 본격적인 여름 산행을 즐기려는 방문객에게 알맞다.

명지산군립공원은 높은 산과 깊은 계곡, 울창한 산림이 어우러져 자연 그대로의 여름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피서지다.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는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협곡과 주상절리, 재인폭포, 비둘기낭폭포 등 독특한 지질 명소를 둘러볼 수 있다.

화성 국가지질공원은 공룡알화석산지를 비롯해 제부도와 우음도 등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지질·생태자원을 품고 있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가족과 책 읽고 AI·과학 체험하세요”

서울교육청, 산하 23개 기관서 운영
온라인 낭독·체험형 프로그램 마련
어린이·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참여

서울시교육청이 여름방학을 맞아 산하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가족과 학생을 대상으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독서캠페인 ‘북웨이브(BookWave)’와 연계해 23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에서 가족 중심의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책을 읽고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낭독과 체험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대표적으로 강서도서관과 서대문도서

관은 북웨이브 100일 챌린지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우리 가족 낭독 프로젝트: 가족 책 소리’를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참가 가족은 선정 도서 6권 가운데 한 권을 읽고 낭독 영상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강서도서관은 ‘우리 가족이 GREEN 탐험대: 우리 가족 지구 밥상’과 ‘우리 가족이 순환 마켓’을, 영등포평생학습관은 ‘세계 그림책 독서교실’을 운영하는 등 가족 단위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으로는 ▲강남도서관(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D 펜 과학창작소) ▲몽대문도서관(미래 상상 AI 창작소) ▲송파도서관(어린이 슬로리딩 여름학교) ▲노원평생학습관(별

책우주: 나도 천문학자랍니다) ▲종로도서관(청소년 독서동아리 청춘논단) 등이 운영된다. 참여자들이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독서와 과학, 인공지능(AI) 분야를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성인을 대상으로는 ▲동작도서관(풍성한 삶을 위한 평생 책 읽기) ▲정독도서관(노벨문학 릴레이 독서챌린지) ▲종로도서관(고전을 쓰다, 오늘을 잇다) 등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서울시교육청 평생학습포털 ‘에버러닝(Everlearning)’과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논산딸기엑스포 민관 협력 본격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민간위원장 위촉

(재)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조직위원회(공동위원장 박수현 충남도지사·백성현 논산시장, 이하 조직위)가 조직위원회 민간위원장을 위촉하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홍보대사 10명을 선정하는 등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민관 협력과 홍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조직위는 3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민간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민간의 전문성과 폭넓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외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엑스포를 세계 딸기산업의 교류·협력의 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

다. 조직위는 함 위원장의 풍부한 경영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기업·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함영주 민간위원장은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딸기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국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이날 충남도청에서 홍보대사 위촉식도 열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 10명을 공식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홍보대사는 충남 계통 출신 가수 길려



박수현 충남도지사(오른쪽)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민간위원장으로 위촉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김준호, 논산딸기축제를 통해 ‘딸기왕자’와 ‘딸기요정’으로 사랑받아온 김은우·김정우, 논산 출신 가수 남궁진과 이채연을 비롯해 썬밸리로 학생 2명, 논산에서 딸기농장을 운영하는 청년농부 2명 등으로 구성됐다.

/논산(충남)=양대승 기자 zzica@

경남, 폭염·가뭄 비상에 대응단계 격상

양산 국내 관측사상 최고 42.5도

경남도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겹치자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응 단계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도에 따르면 3일 기준 도내 전 시·군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이며 14개 시군은 폭염중대경보, 7개 시군은 폭염경보, 2개 시군은 폭염주의보 단계다.

지난 2일에는 양산시 낮 최고 기온이 42.5도까지 오르며 국내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 종전 최고 기온은 2018년 8월 1일 경기 광주 초월읍에서 관측된 41.9도였다.

양산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낮 최고 기온이 40도를 넘기며 이 부문에서도 국내 최장 기록을 세웠는데, 종전에는 2018년 경북 영천이 나흘 연속 40도를 넘

긴 사례가 가장이었다.

경남도는 지난 8월 1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로 격상하고 18개 시군과 함께 비상근무 체계에 들어갔다. 폭염 취약계층 안전 확인을 하루 2회 이상 진행하고 마을방송과 드론, 가두방송 차량을 활용한 취약지역 안내 방송도 하루 3회로 늘렸다.

도내 무더위 쉼터 8200개소에는 냉방비 8억 2000만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주요 쉼터 338개소는 운영 시간을 야간과 주말까지 연장했다.

폭염과 함께 가뭄도 심화하고 있다. 최근 6개월간 도내 누적 강수량은 556mm로 평년(853.8mm)의 65.1% 수준이며 농업용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40.4%까지 낮아져 16개 시군이 가뭄 경계 또는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